

‘Y프로젝트’로 영산강 100리길 되살리자 <5> 전문가 제언

민선 8기 광주시가 내놓은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Y프로젝트)는 영산강·황룡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광주 100년’을 만들기 위한 그랜드플랜이다. 이미 세계적인 국내·외 도시들은 강을 중심으로 ‘미래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시는 Y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꿀잼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Y프로젝트는 친수공간, 하천유지수 확보 뿐 아니라 유사시 식수원으로 전용한다는 고차원적 접근이다. 그만큼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 자칫 토목공사 형태로 방향성을 잃을 경우 환경훼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Y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광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영산강과 황룡강을 만드는 게 ‘1순위’다. 이에 본보는 Y프로젝트를 통해 영산강·황룡강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제언을 직접 들어봤다.

수질

“유량확보·수질개선, 철저한 검증없인 불가능”

김승현 영남대 교수

“광주시 하상여과 공법 타당해” 공법 역사 짚아 시행착오 찾아 최적의 조사와 설계 시공 필요



광주에서 영산강 Y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버려져 볼품 없는 도심하천을 맑은 물이 넘치게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유사한 사업으로는 청계천과 홍제천 사업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서울 도심의 친수 휴식공간으로 이미 세계인들에게도 명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많은 하천들도 이미 20년 전부터 유사한 사업이 추진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심공간이 됐다. 수량 부족과 수질악화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초라해진 영산강의 광주시 구간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살려 과주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친수공간으로 바꾸려는 Y프로젝트가 무척 반갑다.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와 새가 어우러진 도심하천은 그 자체로 사랑받는 공간이다. 앞서 추진된 사업들은 대부분 공원 기능에 더해 저마다의 특색을 살려 그 장점을 뽐내고 있다. 청계천은 국민 모두에게 유명해졌고, 홍제천의 여울목과 인공폭포는 중국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됐으며, 고덕천의 물놀이장도 지역의 명소가 됐다.

Y프로젝트는 광주시민에게 도심공원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계천이나 홍제천을 능가하는, 문화도시 광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획기적이되 광주만의 특색이 있는 설비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 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할 것이다.

다행인 점은 사업의 초기부터 시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 선진 사례 시찰,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전국을 발로 뛰었다는 것이다. 지난 겨울 어느 추운 날 남천 견학을 위해 경산을 방문한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느 공무원답지 않은 열정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열정이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해 광주시의 회의 날카로운 지적과 채찍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의 대응도 참 좋은 콜라보로 보였다. 식지 않는 열정과 건강한 비판에 전문가의 지혜까지 더해지면 사업의 성과는 더욱 풍성하리라 생각된다.

Y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맑은

물을 넉넉히 확보하는 것이다. 하천의 유량확보는 시에서 계획한 순환형 공급체계가 최선으로 보인다. 청계천 등 여러 사업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영산강에서 맑은 물을 얻는 방안도 시에서 계획한 집수정을 이용한 하상여과 방식이 적합하며, 관련한 많은 사례가 있다. 다만, 적지 않은 사례에서 산출유량, 여과수질, 주민 반대 등의 문제가 있었음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공법의 역사도 20여년 정도라 시행착오도 빈번하다.

더욱이 다른 사업들과 달리 Y프로젝트는 갈수 시 여과수를 시민의 식수원으로 전용할 계획까지 포함하므로 안정적인 산출유량은 물론 보다 나은 수질을 위한 최적의 조사와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간

“제방·도로·방음벽, 영산강과 시민 삶 분리시켜”

김준택 전남대 교수

세계도시들 수변공원 역할 극대화 삶의 질 향상·젊은 인재 유입 효과 “영산강 중심 미래 광주 전략 한계”

한 20세기 광주의 도시계획에서 영산강은 도시외곽의 경계로서 인식됐으며, 광주전은 확장된 광주의 경제, 산업, 문화적 관점에서 미래 광주의 중심공간을 계획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각종 계획과 전문가의 논의에서도 무등산에 대한 조망권과 높이지한 및 보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미래 도시 발전전략에 대한 계획은 아직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다.

보행중심 15분 압축도시의 이슈를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안 이달고(Ane Hidalgo) 파리시장은 2024 파리 올림픽에 도시의 중심으로서 세느강의 역할을 새롭게 하고자 했다.

4차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의 주요도시들은 디지털 산업과 핵심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시의 거주



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접근성 좋은 수변공간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창의적인 젊은 인재(Creative Class) 유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을 중심으로 끊긴 보행로를 연결하고 강에 근접해서 레스토랑과 상업시설, 문화시설과 공원등을 배치해, 관광객 뿐만 아니라 도시외곽에 흩어져있는 젊은 중산층을 수변을 중심으로 끌어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한 수질개선과 높은 제방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이징 대학 교수인 공지안 유(Kongjian Yu)는 기존 제방을 해체하고 물의 흐름과 자연의 정화작용을 활용한 스폰지 시티(Sponge City)의 개념을 적용해 환경개선과 수변공원 접근성 향상 등에 새로운 대안을 실증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영산강의 넓은 수역과 부족한 수량관리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산강 주변 종합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광주는 높은 제방에 더해 넓은 자동차 도로와 방음벽으로 시민의 삶과 기억에서 영산강을 점점 분리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광주공항의 고도제한으로 도시의 중심에 미개발지로 남겨진 영산강 수변공간은 공황이전 논의와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담대한 비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 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매력적인 장소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섬세한 공간기획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 때이다.

관광

“영산강·황룡강 가치 키우면 세느강 역할 가능”

김혁 전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익사이팅·시민 휴식처 등 관광 활용 “강 살린다고 토목개발 등 과욕안돼” “도시브랜드 높이고 시민 자긍심도”

고 강이나 산 같은 자연환경이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다. 빛고를 광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Y프로젝트란 이름을 들으면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실상부 호남의 젓줄이자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정확히 Y자 모양으로 만나 호남 평야를 거쳐 서해로 흘러간다. 그 가치를 다듬고 되살려내는 작업이 ‘Y’라는 설명을 들으면 여태껏 알고 있던 광주의 이미지가 새로워진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성의 차원이 아니다. 영산강변에서 출토된 마한시대의 유물들을 보면 영산강변의 비옥한 땅과 강물이 원시사회를 수렵에서 농경으로 이끌었고, 멀리 영남권과 일본 큐슈지방까지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고스란히 지금의 광주의 뿌리가 됐다. 갈대밭과 천혜의 습

지로 가득한 황룡강 역시 지역의 허파 역할을 하며 광주의 오늘을 있게 했다.

그러한 자연 조건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느강은 파리 중심부를 흐른다는 물리적 존재감을 넘어 그 자체가 도시의 역사이며 문화고, 정체성이다. 에펠탑, 노들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 도시 아니, 프랑스 전체를 상징하는 시설들이 세느강변을 따라 자리 잡았고, 바토 무슈(Bateaux Mouches)라 불리는 세느강 유람선 투어는 관광과 라이프 스타일 모두를 만들어낸다.

영산강, 황룡강이 세느강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할 리 없다. 아니 역사적 가치, 쓰임새로 따진다면 훨씬 더한 가치를 확인시켜줄 것이다.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시민의 휴식처가 되며, 문화와 익사이팅의 출발지가 될 것이다. 거기에 광주의

정신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아예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늘 그래왔듯 강의 가치를 살린다는 작업은 땅을 파고 수로를 만들거나 매립하는 토목개발로 혼동되기도 한다. 다행히 그런 걱정을 떨 수 있지만 과욕은 무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내 아이들과 함께 걷는 영산강과 황룡강. 출렁이는 갈대밭을 따라 도도히 흘러 내리며 광주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줄 강물을 생각해 본다. 그럼으로써, 몽블랑산 만년설 이상으로,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보다 더 도시의 브랜드가 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되어줄 것이라 Y프로젝트의 가치를 되새겨 본다.

최권범·김성수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